

닛폰생명, 1위 요양기업 인수로 요양시장 진출1)

- **[개요]** 일본 최대 생보기업 닛폰생명은 장기요양업계 1위 기업인 니치이 홀딩스 인수를 통해 장기요양산업에 진출함
 - 니치이 홀딩스 산하의 니치이학관은 1968년 설립된 기업으로 요양사업, 보육사업, 의료사무업, 헬스케어사업을 영위
 - 니치이 홀딩스 주식을 간접보유한 투자펀드(베인 캐피탈)와 합의한 인수 금액은 약 2,100억엔

[그림1] 닛폰생명과 니치이 학관



[표1] 장기요양기업 순위 (2021년도)

순위	기업명	매출액
1위	니치이 학관	2,673억엔
2위	SOMPO Care	1,366억엔
3위	베네세 홀딩스	1,273억엔
4위	츠클이 홀딩스	950억엔
5위	세콤	745억엔

- **[배경]** 일본 보험업계는 포화된 보험시장의 성장 정체에 따른 신성장동력 창출의 필요성을 체감해왔으며 기존 본업의 특장점 활용이 가능하고 보험과 산업연관성이 높은 요양사업에 주목
 - 2023년 9월 기준 요양사업에 진출한 보험사는 총 6개사이며, 손보그룹 Big3인 SOMPO그룹, 동경해상그룹, MS&AD그룹 외 일부 생보사 [표2]
 - 대형 손보그룹인 **솜포홀딩스**의 경우 기존 사업자 M&A를 통해 단숨에 **업계 2위**로 올라서며, 새로운 수익기반 구축의 성공 사례로 업계에서 주목받고 있던 상황

1) 동양경제 「닛폰생명, 요양기업 니치이 매수로 그리는 성장전략」 (2023.12.16.)

니혼게이자이 「닛폰생명이 최대 요양기업 니치이 인수, 목적은?」 (2023.11.29.)

[표2] 요양사업에 진출한 일본 보험회사 현황 (2023년 기준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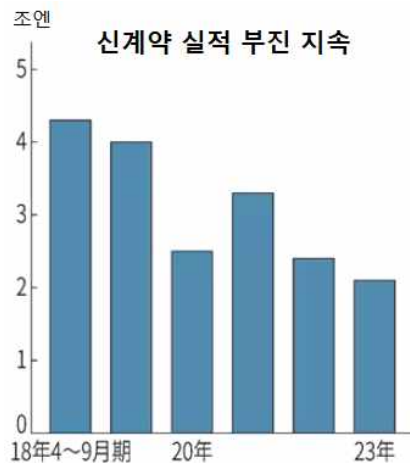
보험사명	요양사업자명	재가서비스	요양시설 (호실수)
SOMPO 홀딩스	SOMPO 케어	625	27,000
동경해상일동	동경해상일동 베테라이프서비스	80	604
미쓰이스미토모	미쓰이스미토모해상 케어넷	6	223
아이오이닛세이도와	후레아이 더라이프서비스	4	N/A
소니보험그룹	프라우드 라이프	-	1,324
메이지야스다생명	선비너스 다치가와	-	137

* 출처: 각 사 홈페이지를 참조로 작성

- 닛폰생명이 이업종인 요양사업에 진출한 배경은 본업의 지속 가능성에 대한 불확실성이 가장 컸으며, 특히 주력이었던 설계사 채널의 신계약 실적 부진*이 위기감 증폭의 계기가 되었음

* 2023년 상반기 개인보험 신계약은 전년 동기간 대비 12% 감소(보장금액 기준) 했으며, 2018년 상반기 대비로는 절반 수준으로 감소함

[그림2] 닛폰생명 설계사 채널 신계약 실적 추이 (보장금액)



*출처: 니혼게이자이 「닛폰생명 인수 발표, 생보 의존 탈피한 승부수」 (2023.11.29.)

- 이에 보험 외 서비스 및 신사업 발굴에 대한 니즈가 점점 확대, “요람에서 무덤까지, 생애주기별 보장서비스 제공“의 비전을 내세운 닛폰생명에 있어 요양사업 진출은 비전 실현에 꼭 필요한 요소로 떠오름

-
- **[경위]** 닛폰생명과 니치이는 오랫동안 제휴 관계에 기반한 여러 협력사업을 꾸준히 추진해오면서 기업 상황을 잘 파악하고 있음
 - 1999년에 제휴를 체결하고 2001년 공동출자로 건강/간병정보 제공회사 “Lifecare Partners” 를 설립, 닛폰생명 계약자에게 니치이 전문가에 의한 치매/간병 관련 서비스를 제공
 - 동 기업을 통해 2016년부터 수익원 및 고객점점 확대의 일환으로 간병/보육 등 라이프케어 분야의 사업을 추진
 - 지금까지는 법률상의 업무범위 제한으로 인해 직접 사업을 운영하기보다는 보험계약의 부대서비스로만 제공해왔으며, 본격적인 시장 진출로까지는 이어지지 못했음
 - 경험이 없는 요양산업을 처음부터 시작하는 것은 어렵다고 판단하던 차 2023년 봄, 투자 출구전략을 모색하고 있던 베인 캐피탈로부터 인수 제안을 받았으며, 신시장 진출의 절호의 찬스라고 판단해서 인수를 결정함
 - **[향후 전망]** 이번 닛폰생명이 업계 1위 기업을 인수함에 따라 일본 장기요양업계는 대형 생보사 vs. 대형 손보사의 양자 경쟁 구도가 형성됨
 - 2022년도 니치이의 요양사업 영업이익은 200억엔 수준으로 닛폰생명의 전체 영업이익(6천억엔) 대비 미미한 수준
 - 그러나 평균수명 증가/고령화로 요양시장 규모는 2040년 경에는 2022년 대비 2배 규모*가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으며 닛폰생명은 시장 성장 이상의 수익성 확보를 목표로 하고 있음
 - * 2022년 약 130조원 수준, 2040년에는 250조원까지 2배 성장 전망
 - 그밖에 요양사업의 서비스나 인프라, 고객기반을 활용한 생명 보험사업과의 시너지 효과 창출방안을 강구하겠다는 계획
-

[그림3] 니치이 요양시설/서비스 홈페이지



🏠 自宅にいながら安心して暮らしたい
재가 서비스

<p>재가 요양 지원</p>	<p>방문요양 서비스</p>	<p>방문간호 서비스</p>	<p>데이케어서비스</p>
<p>방문목욕 서비스</p>	<p>용품 대여 서비스</p>	<p>소규모다기능 재택요양</p>	<p>간호 소규모 재택개호</p>

🏢 施設に住み替えて暮らしたい
요양 시설

신체 상태에 맞는 시설 비교 →

<p>그룹 홈 (치매 전용)</p>	<p>유료 노인 홈</p>	<p>저비용 노인 홈</p>
----------------------------	-----------------------	------------------------